

品質에서 앞서가는 비락우유



비락양산공장 전경

1. 개요

(주) 비락의 역사는 올해로써 만 24돌을 맞았다. 1963년 3월23일 이날은 여타 유업체보다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주) 비락의 모체인 한국미락(주)이 탄생한 날이다. 현재 전국 4개공장, 7개 사(영)업소에 300개의 대리점을 두고 완벽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새벽배달을 통해 가정까지 직접, 신선하고 영양이 높은 우유를 애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주로 경남지역 일대에서 제품판매를 시도한 (주)비락은 83년 서울진출, 84년 대전진출에 이어 증가하는 판매량을 충당하기 위해 85년 12월 대지 12,000평 건물 1,700평의 방대한 부지및 최신의 기계설비를 갖춘 대구공장을 증축하였다. 매출액도 갈수록 늘어 87년 현재 600억원을 달성할 전망에 있으며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품질에서 앞서가는 비락우유」란 캐치플레이즈 아래 건강사회를 이루는것을 비락의 자랑으로 1,000여 임직원은 오늘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연혁

(주) 비락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3월 한국미락(주)이라는 명칭으로 설립하였다.
1967년 8월 부산공장을 준공하여 가당연유만을 생산해 오다가
1970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유생산을 개시하였다.
1978년 4월에는 삼화식품을 인수하여 진주공장을 설립하였고
1980년 8월에는 최신시설의 양산공장을 준공하여 경남일대의 늘어나는 소비량을 충당하였다.
1982년 7월에는 삼광유업(주)을 흡수합병하여 대구공장을 발족하였으며
1983년 3월에는 오준석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국민 건강및 식생활개선에 중점을 두고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에 일층 노력을 배가하였다.
1984년 12월에는 다양화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레토르트 공장을 준공하여 명실공히 종합식품회사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1985년 6월에는 영동에 집유소를 설치하여 중부지역의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선한 원유 집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어 12월에는 김해공장을 준공, 어린이 및 젊은층의 간식에 맞는 스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 제품소개

(주) 비락의 유제품으로는 주종제품인 백색시유(지로팩, 500ml, 1,000ml) 가공시유(딸기, 초코, 밤)와 신선한 우유로부터 만들어지는 후렌치버터, 분유, 생크림과 유산균음료(자두맛, 파인애플맛) 등이 있으며 일본 일반식품(주)과 기술제휴한 레토르트 제품으로는 카레, 짜장, 스프, 스투, 단팥죽, 오렌지 음료 등이 있고, 일본 잇토사와 기술제휴한 스낵제품(놀부밥 I, II, 참치깡, 하마코, 헬리링, 눈치밥, 골뱅이깡, 울통불통, 양파깡)도 생산하고 있어 전체 제품은 수십종에 이른다. 레토르트 식품이란 알루미늄 봉지에 여러가지 식품을 넣어서 고온, 고압 상태로 살균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간편하면서도 기호에 맞게 생산된 제품으로 최근 소비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4. 복지후생 시설 및 사회에 대한 공헌도.

전사원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제회를 운영하여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여개의 건전씨클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노사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숙사운영, 도서실, 휴게실, 탁구장, 목욕탕, 각종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사기양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불우이웃돕기 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가족, 유치원, 새마을어머니회, 농촌지도소, 교육연구회 등에서 연간 5,000여명을 초대하여 공장견학 및 video 상영을 통하여 유제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종래 쌀과 보리만을 주식으로 삼던 한국인의 식생활에 높은 영양가의 유제품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는 보람에 저희 임직원은 가슴뽕뽕함을 느끼고 있다.

5. 앞으로의 계획 및 전망

신선한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자라나는 2세 건강을 책임지는 것'을 미래의 사명으로 간직하는 저희(주) 비락은 현재 전 생산공장에 자동화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 해외(유럽) 연수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전 집유의 탱크로리 화를 통하여 더욱 더 신선한 제품생산에 주력할 것이고, 모든 사무에 전산처리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영업본부에 소비자 상담실을 두어 소비자 애로사항 해소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TQC 사무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VE, QC, FA(공정자동화) OA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한국제일의 종합식품회사 건설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다.

힘찬도약 !

굳건한 단결 !

영원한 전진 !